

원저

온라인 환자커뮤니티 이용자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성희¹, 김정은^{1,2}, 김태윤², 박선영², 신윤주², 이선영²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²

Survey on the consumer preference for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of the patients' online community members

Seong Hee Jeong¹, Jeongeon Kim^{1,2}, Taeyoon Kim²,
Sunyoung Park², Younjo Shin², Sunyoung Lee²

Science, Seoul National Univ.¹,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btain basic data required to plan and develop consumer centere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ite for Korean population. **Methods:** An internet survey was conducted on 5 internet patient community sites between 23 January and 5 February, 2007. A total of 958 surveys were completed and included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sion 12.0. **Results:** According to ou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ore internet usage, foreign country residents, members of breast cancer internet community, any workers except sales, and higher level of necessity/usefulness/reliability showed a higher Odds ratio for frequency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Educational status, frequency of using internet, importance, necessity, usefulness, reliability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p<.001$), income, and satisfac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p<.05$)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frequency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Conclusion:** Abov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for planning to develop consumer centere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porta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13-3, 207-220, 2007)

Key words: Consumer Preference, Consumer Health Information, Internet, Patient Community

논문투고일: 2007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07년 8월 11일

교신저자: 김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10-799)

전화: 02-740-8483, Fax: 02-765-4103, E-mail: kim0424@s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활용의 증가, 의료공급의 확대, 국민의 의학적 지식과 권리 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건강정보 소비자들이 건강관련 정보 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¹⁾²⁾³⁾, 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2004년에는 인터넷 사용자의 79%가 인터넷 건강정보를 검색 하였고⁴⁾, 2006년에는 1억 1600만 명의 성인이 인터넷으로 건강정보를 검색하였는데 이는 5년 전인 2001년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⁵⁾. 이와 같이 이용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성별이나 연령, 교육 년수, 경제력 등의 소비자 특성에 따라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⁶⁾⁷⁾.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률의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련 정보가 유용하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¹⁾²⁾⁸⁾.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터넷은 건강정보 제공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환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장(場)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매우 다양한 환자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각 커뮤니티 회원들은 공통의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 비해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그들을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환자커뮤니티는 구성원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포함하는 구성에서 환자들만으로 구성된 것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의료 전문인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릇된 지식전달이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carpal tunnel syndrome에 관한 온라인 정보제공 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전체 대상 사이트의 23%만 의료

인이나 학술단체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제공 사이트의 1/4정도에서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⁹⁾. 또한 대다수의 웹사이트에서 약물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루고 있어 건강정보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¹⁰⁾.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¹¹⁾되고 있는 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 및 내용의 구성을 위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건강정보 제공자는 소비자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Chang 등⁷⁾은 건강정보 웹사이트 이용자에 의해 인식된 주요 서비스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양, 고객 배려, 편리성, 최신성, 보안 및 무결성, 공신성, 반응성, 그리고 투명성의 9 가지 속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을 위해서는 주요 서비스 속성들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파악과 아울러 기존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이용 경험을 통한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환자커뮤니티 가입자들의 견해야말로 소비자 중심의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에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아울러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하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그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인터넷 건강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소비자 중심의 인터넷 건강정보제공 사이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환자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및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 인터넷 건강정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장단점과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후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터넷 환자커뮤니티 가입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상관성 검증연구이다.

2. 연구대상

국내 인터넷 환자커뮤니티의 분포, 현황 및 특성에 관한 문헌¹²⁾을 참고로 하여 대상환자커뮤니티를 선정하였다. 즉 인터넷에서 검색어를 ‘환자단체, 환자공동체, 환자커뮤니티, 환자모임, 환우회, 자조단체, 자조모임, 각 질병명’으로 하여 환자 커뮤니티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대상 커뮤니티의 숫자가 상위 30개 이내에 속하는 질병군을 일차 대상으로 한 후 가입자의 연령 및 질병군의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한 분석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피부과(25.9%), 암(17.5%), 내분비계(12.7%), 근골격계(11.8%), 선천성 질환(2.0%)의 상위 5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해당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되며(최근 3개월 이내에 상업성 글을 제외한 게시된 글이 있는 커뮤니티), 활동중인 가입자수가 100명 이상인 곳을 검색한 후 관리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연락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환자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방암, 당뇨,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구순구개열의 5개 환자커뮤니티가 선정되었다.

3. 연구도구

국내 건강정보 소비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Kim¹³⁾과 Chung 등¹⁴⁾의 도구와 Chang 등⁷⁾이 연구를 통해 규명한 건강정보 웹사이트 이용 고객의 사용자 중심 요구 속성 9가지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들이 재구성한 건강정보 선호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9문항, 인터넷 이용행태 4문항,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 9문항, 인터넷 건강정보의 장단점 및 신뢰도, 만족도에 관한 6문항

이며, 인터넷 건강정보의 중요성은 Likert 5점 척도, 필요성에 관한 질문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문항 수는 30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 만족도,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중요성 도구가 0.904, 필요성 도구가 0.892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에 온라인 설문지 작성은 의뢰하였고 완성된 설문지를 각 커뮤니티의 운영자에게 전달하였다. 각 운영자들은 공지사항과 회원 전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에 관한 취지와 참여촉구의 글을 회원들에게 회람하였다. 대상자의 중복응답을 막기 위해 동일 IP로 설문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참여하였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례비 지급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커뮤니티 운영비 지급 방식을 택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응답자는 958명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이용행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 인터넷 건강정보의 중요성, 필요성, 장단점, 유용성,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 만족도는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였고,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와 대상자의 특성,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는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를 통해 알아보았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를,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거주지역, 전반적인 건강상태, 가입한 인터넷 환자커뮤니티의 종류 및 회원의 형태, 인터넷 이용기간, 인터넷 이용빈도, 1회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 목적, 인터넷 건강정보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 유용성 및 만족도 등을 사용하여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7세(범위 10~70세)였으며 여자가 68.2%로 남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62.2%(596명)가 대학교 졸업 이상,

31.1%(298명)가 고졸 학력자이며 전체의 28.8%(276명)가 가정주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무직(18.8%), 전문직(15.3%) 종사자 순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300만원이 전체 응답자의 49.8%(477명)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는 경기도(28.3%), 서울(27.6%), 경상도(20.8%)의 순이었으며 해외거주자가 2.7%(26명)이었다.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보통이다(46.9%)”, “나쁘다(29.1%)”의 순이었다. 응답자가 속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958)

Variable	Category	N	%
Age	Under 30 30 ~ 39 40 ~ 49 50 ~ 59 Over 60 Mean±SD (Range)	267 300 247 115 29 37± 11.3(10~70)	27.9 31.3 25.8 12.0 3.0
Gender	Male Female	305 653	31.8 68.2
Educational status	Elementary school graduates and below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College graduates and above Missing	18 36 298 596 10	1.9 3.8 31.1 62.2 1.0
Occupation	Office worker Sales Service worker Manufacturer Professional Student Housewife Unemployed Others Missing	180 16 58 22 147 102 276 49 102 6	18.8 1.7 6.1 2.3 15.3 10.6 28.8 5.1 10.6 0.6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 1,000,000 ≥ 1,000,000 ~ <3,000,000 ≥ 3,000,000 ~ <5,000,000 ≥ 5,000,000 Missing	89 477 272 95 25	9.3 49.8 28.4 9.9 2.6
Residence area	Seoul Kyunggi-do Kangwon-do Chungcheong-do Kyungsang-do Cheolla-do Jeju-do Overseas/others Missing	264 271 16 94 199 74 9 26 5	27.6 28.3 1.7 9.8 20.8 7.7 0.9 2.7 0.5
General health condition	Very poor Poor Average Good Very good Missing	37 279 449 157 30 6	3.9 29.1 46.9 16.4 3.1 0.6
Grouping of internet disease community	Diabetes Rheumatoid arthritis Breast cancer Cleft lip and palate Atopic dermatitis Missing	215 215 82 43 379 24	22.4 22.4 8.6 4.5 39.6 2.5
Type of internet disease community membership	Patient Family Others Missing	590 287 50 31	61.6 30.0 5.2 3.2

한 환자커뮤니티로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39.6%(37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당뇨(22.4%)와 류마티스 관절염(22.4%)의 순이었으며 회원의 형태로는 환자회원이 61.6%(590명)로 가장 많았고 가족회원이 30.0%(287명), 기타가 5.2%(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조사대상자 958명의 82.3%(788명)은 인터넷을 이용한지 5년 이상 되었으며 78.0%(747명)는 주 5회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1회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30분~1시간이 전체의 31.7%(30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분 이하(29.1%)였으며, 대상자의 43.5%(417명)는 인터넷 이용의 목적이 뉴스나 정보검색이었다 (Table 2).

건강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가 68.3%(6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의료기관 방문이나 전화 문의(14.1%)였고, 의료기관의 위치나 의료진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도 인터넷 검색의 방법(61.2%)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52.9%(507명)는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사용하는 경우는 43.3%(415명)이었다. 따라서, 인터넷을 건강정보 획득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6.6%(447명)이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워서”가 전체 이유의 33.4%(22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너무 많은 건강정보가 제공되어 활용하기 어려우므로(31.5%)”이었다.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507명의 대상자의 56.9%(288명)은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 사이트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사이트의 24.7%(71명)는 비영리기관이, 22.6%(65명)는 대학병원이 개설한 것이었고 대부분(81.6%)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건강정보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2~5개의 사이트를 검색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9.0%(374명)로 가장 많았고 건강정보는 주로 자기자신을 위해 검색하며(61.4%) 그 다음이 자녀(20.7%)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Internet usage

(N=958)

Characteristics		N	%
Duration of using internet (years)	< 1	23	2.4
	≥ 1 ~ < 3	46	4.8
	≥ 3 ~ < 5	97	10.1
	≥ 5	788	82.3
	Missing	4	0.4
Frequency of using internet	Over 5days/week	747	78.0
	3~4days/week	153	16.0
	1~2days/week	48	5.0
	Under 3days/month	6	0.6
	Missing	4	0.4
Average hours of internet usage per one time	< 1	29	3.0
	≥ 1 ~ < 3	555	57.9
	≥ 3	369	38.5
	Missing	5	0.5
Mean SD (Range) 2.7±2.2 (0.1~20)	News or information	417	43.5
	Working	168	17.5
	Hobby or leisure	143	14.9
	e-Mailing	80	8.4
	Chatting or club	67	7.0
	Shopping	46	4.8
	Research or study	31	3.2
	Missing	6	0.6
Purpose of using internet			

Table 3. Usage of health information services

(N=958)

Characteristics	N	%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Searching internet	654
	Visiting or calling to clinic	135
	Mass media	74
	Recommendation by relatives or family	73
	Others	17
	Missing	5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linic	Searching internet	586
	Recommendation by relatives or family	224
	Visiting or calling to clinic	107
	Mass media	28
	Others	8
	Missing	5
Frequency of internet usage for health information	Seldom	32
	Sometimes	415
	Frequently	507
	Missing	4
Reasons for not frequent usag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if applicable, multiple response)	Unreliable contents	220
	Too many health information	207
	Incomprehensible contents	100
	Limited time	95
	Others	36
	Subtotal	658
Do you have health information site that you usually use?	N/A	507
	Yes	288
	No	218
	Missing	1
	Subtotal	507
Main homepages used for the health information retrieval	N/A	451
	Non profit organizations	71
	University hospital	65
	General hospital	43
	Personal	19
	Clinic	15
	Sales company	12
	National institution	10
	Oriental medicine clinic	4
	International internet site	2
	Public health center	1
	Pharmacy	0
	Others	41
Source of obtaining health information site	Missing	5
	subtotal	288
	N/A	670
	Internet navigation	235
	Recommendation by relatives or family	18
	Recommendation by physician or health professional	12
	Mass media	12
	Commercial advertisement	0
	Others	4
	Missing	7
Average number of internet sites searching for health information	Subtotal	288
	N/A	670
	1	31
	2~5	374
	6~10	63
	More than 10	32
For whom do you search health information?	Missing	458
	Myself	588
	Children	198
	Parents	47
	Partner	46
	Relatives	5
Others	73	7.6
	Missing	1

3. 인터넷 건강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대상자가 인식하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중요성은 1~5점의 범위 중 평균 4.3(± 0.5)점이었다. 16개 세부 항목 중 “의학적 정보의 신뢰성”과 “정보의 명확한 의학적 근거”의 중요성 점수가 평균 4.6(± 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제공자의 학력 및 이력 표기”의 중요성 점수는 평균 3.6(± 1.1)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4).

4. 인터넷 건강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터넷 건강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3.5점(범위: 1~4)이었다. 14개 세부 항목에 대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질병에 대한 정보(정의, 증상, 원인 등)”와 “건강증진 및 안녕도모를 위한 정보(운동, 식이요법 등)”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각각 3.8(± 0.3), 3.8(± 0.4)로 가장 높았으며, “의학학술

정보(전문적 학술 자료)”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3.0(± 0.8)으로 가장 낮았다(Table 5).

5. 인터넷 건강정보의 장단점, 유용성, 신뢰도, 만족도에 대한 인식

대상자가 인식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의 장점으로는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가 55.1%(52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보의 양과 내용이 다양하다”로 21.7%(208명)가 응답하였으며, 단점은 “과다 혹은 허위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다.”가 43.3%(415명), “제공되는 의료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가 35.3%(33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얻은 건강정보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점수가 1~4점의 범위 중 1.7(± 0.5)점이었고 대상자의 63.3%(606명)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Table 4. The importanc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N=958)

Characteristics	Very high N(%)	High N(%)	Neutral N(%)	Low N(%)	Very low N(%)	Mean \pm SD
Reliable information	741(77.3)	121(12.6)	79(8.2)	4(0.4)	1(0.1)	4.6 \pm 0.6
Evidence based information	693(72.3)	156(16.3)	89(9.3)	8(0.8)	1(0.1)	4.6 \pm 0.6
Sufficient volume of information	443(46.2)	281(29.3)	197(20.6)	16(1.7)	1(0.1)	4.2 \pm 0.8
Wide range of information	438(45.7)	317(33.1)	170(17.7)	12(1.3)	1(0.1)	4.2 \pm 0.8
Communication methods (bulletin board, Q&A)	394(41.1)	303(31.6)	196(20.5)	43(4.5)	8(0.8)	4.0 \pm 0.9
Ease of navigation	467(48.7)	315(32.9)	142(14.8)	15(1.6)	2(0.2)	4.3 \pm 0.7
Display of final updated date of website	393(41.0)	314(32.8)	185(19.3)	38(4.0)	8(0.8)	4.1 \pm 0.9
Display of website update frequency	361(37.7)	328(34.2)	209(21.8)	33(3.4)	6(0.6)	4.0 \pm 0.8
Privacy protection	642(67.0)	160(16.7)	112(11.7)	20(2.1)	6(0.6)	4.5 \pm 0.8
System security	573(59.8)	183(19.1)	151(15.8)	29(3.0)	3(0.3)	4.3 \pm 0.8
Seal of approval	494(51.6)	250(26.1)	155(16.2)	34(3.5)	6(0.6)	4.2 \pm 0.9
Use of comprehensible terminology	560(58.5)	258(26.9)	112(11.7)	5(0.5)	2(0.2)	4.4 \pm 0.7
Quick response to consumers' question or request for counseling	623(65.0)	230(24.0)	76(7.9)	9(0.9)	2(0.2)	4.5 \pm 0.7
Quick response to consumers' complaints	588(61.4)	237(24.7)	96(10.0)	11(1.1)	2(0.2)	4.5 \pm 0.7
Display of information provider	495(51.7)	280(29.2)	138(14.4)	21(2.2)	3(0.3)	4.3 \pm 0.8
Display of educational background & profile of information provider	266(27.8)	283(29.5)	265(27.7)	79(8.2)	43(4.5)	3.6 \pm 1.1
Total Mean \pm SD (range)				4.3 \pm 0.5 (1~5)		

Table 5. The necessity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N=958)

Characteristics	Very high N(%)	High N(%)	Low N(%)	Very low N(%)	Mean±SD
Disease information (definition, symptom, cause etc.)	817(85.3)	116(12.1)	1(0.1)	1(0.1)	3.8±0.3
Health promotion or wellbeing information (exercise, diet etc.)	767(80.1)	157(16.4)	7(0.7)	1(0.1)	3.8±0.4
Self assessment tool	672(70.1)	249(26.0)	8(0.8)	3(0.3)	3.7±0.4
Drug information	661(69.0)	229(23.9)	38(4.0)	2(0.2)	3.6±0.5
Herbal medicine and supplement information	466(48.6)	361(37.7)	84(8.8)	16(1.7)	3.3±0.7
Medical encyclopedia (photos, animation etc.)	486(50.7)	365(38.1)	71(7.4)	10(1.0)	3.4±0.6
Medical dictionary	416(43.4)	384(40.1)	109(11.4)	23(2.4)	3.2±0.7
Health news	569(59.4)	307(32.0)	45(4.7)	5(0.5)	3.5±0.6
Directories(search for hospital, clinic, or health care professional)	608(63.5)	278(29.0)	41(4.3)	6(0.6)	3.5±0.6
Organizations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438(45.7)	376(39.2)	101(10.5)	17(1.8)	3.3±0.7
Journal articles	344(35.9)	359(37.5)	191(19.9)	37(3.9)	3.0±0.8
Education services	469(49.0)	354(37.0)	83(8.7)	18(1.9)	3.3±0.7
Online patient community	642(67.0)	251(26.2)	30(3.1)	5(0.5)	3.6±0.5
Counseling services (Q&A, FAQ)	619(64.6)	271(28.3)	28(2.9)	4(0.4)	3.6±0.5
Total Mean±SD (range)			3.5±0.4 (1~4)		

Table 6. The strength, weakness, usefulness, level of reliability, and level of satisfac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N=958)

Variable	Category	N	%
Strength	Increase the opportunities of hospital selection	76	7.9
	Understanding of the level of medical care services	20	2.1
	Counseling with doctors without visiting hospital	73	7.6
	Acquiring information in real time	528	55.1
	Plenty of information	208	21.7
	Saving costs	36	3.8
	Don't know	9	0.9
Weakness	Concern about fraudulent or misleading information	415	43.3
	Unsatisfactory amount or quality of information	111	11.6
	Unreliable information	338	35.3
	Inconveniences of navigation	21	2.2
	Excessively large amount of information	43	4.5
	Don't know	19	2.0
	Mean±SD (range)	1.7±0.5 (1~4)	
Usefulness	Very useful	3	0.3
	Useful	67	7.0
	Little useful	606	63.3
	Useless	273	28.5
	Mean±SD (range)	1.7±0.5 (1~4)	
Level of reliability	Very high	3	0.3
	High	269	28.1
	Neutral	616	64.3
	Low	62	6.5
	Mean±SD (range)	2.2±0.5 (1~4)	
Level of satisfaction	Very high	20	2.1
	High	391	40.8
	Neutral	520	54.3
	Low	11	1.1
	Mean±SD (range)	2.4±0.5 (1~4)	

(28.5%)”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은 건강정보를 약간 만 믿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4.3%(616명), 대체로 믿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8.1%(269명)이었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2.2점(범위: 1~4)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4점(범위: 1~4)이었고 “대체로 불만이다”가 54.3%(52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체로 만족한다(40.8%)”의 순이었다 (Table 6).

6. 대상자의 특성, 인터넷 이용 정도 및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와 대상자의 특성,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 인터넷 건강정보의 유용성, 중요성, 필요성과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 간에는 $p<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만족도와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 간에는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7).

7.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대상자가 인터넷 환자커뮤니티 가입자임을 감안하여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와 “가끔 사용한다”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로 재 분류하였고, 성별, 교육 정도,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거주지역, 가입한 인터넷 환자커뮤니티의 종류 및 회원의 형태, 인터넷 이용 목적에 대하여 더미변수를 조작하였다. 직업, 거주지, 인터넷 환자커뮤니티의 종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p<0.05$ 에서,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건강정보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p<0.001$ 에서 인터넷 이용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판매직이 아닌 경우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았고 해외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았다. 유방암 환자커뮤니티 회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았으며 인터넷 이용을 자주 할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았다. 인터넷 건강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았으며 인터넷 건강정보를 믿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았다 (Table 8).

8. 효과적인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에 관한 대상자 의견

소비자 중심의 효과적인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한 가지 이상의 의견을 제공한 응답자는 398명이었다. 효과적인 건강정보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하

Table 7. Frequency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internet usage, and percep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N=958)

Variable	Category	Frequency of internet usage for getting health-related information
Educational status		.091**(rho)
Monthly household income		.077*(r)
Frequency of using internet		.240**(r)
Percep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efulness	.318**(r)
	Level of reliability	.196**(r)
	The importanc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113**(r)
	The necessity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195**(r)
	Level of satisfaction	.064*(r)

*: $p<0.05$, **: $p<0.001$

Table 8. The odds ratios of factors affecting frequency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N=958)

Factors		OR	95.0% C.I.
Occupation ^a	Business man	-1.38*	0.06 – 0.97
Residence area ^b	Overseas/others	1.36*	1.18 – 12.85
Grouping of internet disease community ^c	Breast cancer	0.91*	1.27 – 4.87
Frequency of using internet		1.01**	1.96 – 3.87
Percep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The necessity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0.05**	1.02 – 1.08
	Level of reliability	0.44*	1.14 – 2.14
	Usefulness	0.96**	1.88 – 3.65

*: p<0.05, **: p<0.001

Reference category: a. Office worker; b. Seoul; c. Diabetes;

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겸증된 근거중심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 사이트가 난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었다. 또한, 난치병 환자,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쉬운 용어 사용과 그림이나 사진 활용 등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컨텐츠를 구성하는 구체적 항목 중에서는 질병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치료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진료비나 의료기관 등의 진료정보 안내에 관한 요구 또한 매우 높았는데 의료기관 검색 기능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방이나 대체요법, 민간요법, 건강관련 최신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업데이트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고찰

이 연구는 소비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 및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중심의 인터넷 건강정보제공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현재까지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기존의 논문들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주를 이루어왔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의 활용도

가 더 높아진 최근에 들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한다면, 연구결과 밝혀진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면에서 이전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이용,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및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80% 내외가 인터넷 사용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주 5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6년 6월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률이 73.5%¹⁴⁾이며 전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의 90% 이상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자료¹⁵⁾와 일관성이 있다. 이를 2003년 조사결과¹⁶⁾와 비교했을 때 월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수가 전체의 48%, 주 1회 이상이 21.2%였던 것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뉴스나 정보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으나, 네이버의 행태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 2006년 자료¹⁴⁾에서 95.2%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인터넷 이용목적에 있어 두 연구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006년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만 12~49세였으므로 두 연구의 응답자 연령분포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 연구의 경우 응답자의 85%가 49세 이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이용목적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인터넷 환자커뮤니티 가입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외에도 인터넷의 일상화로 인해 블로그, 미니홈피, 동호회, 커뮤니티의 이용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참여와 공유에 대한 요구 증가 추세¹⁴⁾가 반영된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는 바, 추후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 과정에도 이와 같은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건강정보를 습득하거나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 건강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거나(33.4%) 너무 많은 건강정보가 제공되어 활용하기 어려워서(31.5%), 혹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15.2%)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2003년도에 실시된 인터넷 이용 행태 관련요인 분석연구³⁾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보의 다양성 부족(34.1%)이 가장 많았고 내용의 번역함(18%), 충분한 전달의 어려움(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은 그룹이 전체의 7.7%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터넷 보급 및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적절한 질적 통제가 미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실태 분석 자료¹⁶⁾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너무 많은 건강정보가 제공되어 활용하기 어려움(21.4%),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19.9%), 신뢰하기 어려움(17.2%)과 더불어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기술 부족 및 비용이나 접속의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어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³⁾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와 Ryeu¹⁶⁾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약 3년간 국내 인터넷 이용률 증가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이용편의성 관련 문제가 줄어들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수는 급격히 증가되는데 반해, 넘쳐나는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고 받아들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과 질적인 통제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79개의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평가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설에서 전체의 70% 연구가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¹⁷⁾으로 보아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적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 사이트가 있는 경우, 그 사이트의 24.7%(71명)는 비영리기관이, 22.6%(65명)는 대학병원이 개설한 것으로 조사되어 Ryeu¹⁶⁾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는 반면에, 응답자의 14.9%는 개인이 개설한 건강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인터넷 건강정보는 주로 자기자신을 위해 검색하며(61.4%) 그 다음이 자녀(20.7%)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응답자의 환자커뮤니티 회원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Ryeu¹⁶⁾의 연구결과와 일관성이 있었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중요성은 1~5점의 범위 중 평균 4.3점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의 신뢰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보 제공자의 학력 및 이력표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다양성, 최신성, 편리성, 보안성, 공신성, 반응성, 고객배려, 투명성 등 세부 항목 전반에 걸친 중요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인터넷 건강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점수가 3.5점(범위: 1~4)으로 매우 높았으며, 14개 세부 항목 중에서는 “질병에 대한 정보(정의, 증상, 원인 등)”와 “건강증진 및 안녕도모를 위한 정보(운동, 식이요법 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건강 및 의료에 관한 정보 획득 및 질병치료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던 Kim 등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수없이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미 이들에 관련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통해 전문가들은 현재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의 양적, 질적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검진 방법이나 건강관련 최신정보, 교육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나 건강정보 소비자의 관심이 질병의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소비자들은 환자커뮤니티 운영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응답자 집단이 환자커뮤니티 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관심도가 높은 것과 더불어 웹 2.0 시대를 맞이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건강정보가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대상자의 12%가 50대였고, 60세 이상이 3.0%였으며 사회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간결한 디자인과 큰 글씨체와 같은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에게 건강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아동취향을 고려한 캐릭터의 활용이나 애니메이션 기법 등에 대한 기획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개방형 조사에서도 정보의 신뢰성, 명확성, 다양성 등이 소비자 중심의 효과적인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져 정확성과 필요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었다. 의료기관 검색 기능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대책이 요구되며, 한방이나 대체요법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과학적인 검증절차와 체계적인 정리과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개발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및 실시간 상담 기능, 쉬운 용어 사용, 동영상 자료의 활용 등이 제시되었으므로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을 위해서는 이상의 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건강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매우 높은 반면, 인터넷을 통해 얻은 건강정보내용의 유용성, 신뢰도,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다 혹은 허위 정보 및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인터넷 건강정보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기획이 요구된다.

2.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상자의 직업, 거주지, 인터넷 환자커뮤니티의 종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 인터넷 이용빈

도, 인터넷 건강정보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인터넷 이용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³⁾⁷⁾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사무직이나 학생일 경우에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인터넷 보급률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판매직이 아닌 경우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사무직이나 학생수준에 머물던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층이 다소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 초기에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건강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30~40대 여성의 이용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¹⁸⁾, 이는 가정 내에서의 돌보는 역할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외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았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언어문제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현 거주국 의료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외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의 활용이 힘든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가 다량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 추측된다. 즉 인터넷이란 본래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므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또한 널리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기타 소외계층에게도 충분한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건강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았으며 인터넷 건강정보를 믿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 연구결과³⁾¹⁹⁾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여 정보습득이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자 인증제도, 계재되는 내용에 대한 감수체계 마련과 더불어 표준화된 신뢰도 측정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용 건강의료용어를 개발하고 웹 개발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웹기능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비용과 편리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설문조사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넷을 통한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조사하는 설문에 비해 응답자의 응답 성실도나 질문에 대한 이해도 등과 같은 점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신뢰도의 문제도 지니고 있다²⁰⁾. 이번 자료수집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도가 높으며 설문주제에 관심이 많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환자커뮤니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대상 질병 분류나 커뮤니티 선정 과정상의 제한점으로 인해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의 확대 적용에 주의를 요한다.

VI. 감사의 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5개 질병부문 인터넷 커뮤니티(Daum café “당뇨병 올바로 다스리기”, Daum café “류마티스를 이기는 사람들”, 서울대병원 유방암환우회 “비너스”, 서울대병원 구순구개열 환아부모모임 “빅스마일”, Daum café “아토피 피부염!”) 회원 여러분들과 운영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 혹은 가족의 질병을 이겨내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환한 빛이 되고자 하시는 인터넷 환자커뮤니티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참고문헌

- Chung HT, Kim JA. Utilization of internet-based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hospital selection among health care consumers: internet survey. J Kor Soc Med Informatics 2005;11(2):125-135.
- Kang NM, Hyun TS, Tack, GR. Needs assessment for health and nutrition information of Korean women through PC communication. J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998;4(3):365-374.
- Kim Y, Jung SH, Lee HJ. Factors affecting on-line medical information retrieval by patients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J Kor Soc Med Informatics 2003;9(4):457-468.
- Eight in ten internet users have looked for health information online, with increased interest in diet, fitness, drugs, health insurance, experimental treatments, and particular doctors and hospitals. Available at: http://www.pewinternet.org/pdfs/PIP_Healthtopics_May05.pdf. Accessed January 8, 2007.
- 116 Million Consumers Online for Health; Multi-Channel Marketing Opportunities Surge Manhattan Research Offering Complimentary Webcasts on November 20th and 21st. Available at: <http://www.manhattanresearch.com> Accessed January 13, 2007.
- Available at: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pub/e-Health_%ED%98%81%EB%AA%85_20040223154422.PDF. Accessed January 17, 2007.
- Chang HJ, Kim DH, Shim JS. Attributes of user-centered evaluation for health information websites. J Kor Soc Med Informatics 2004;10(4):429-440.
- Pennbridge J, Moya R, Rodrigues L. Questionnaire survey of California consumers' use and rating of sources of health care information including the internet. West J Med 1999;171:302-305.
- Beredjiklian PK, Bozentka DJ, Steinberg DR, Bernstein J. Evaluating the source and content of orthopaedic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case of carpal tunnel syndrome. J Bone Joint Surg Am 2000;82-A(11):1540-1543.
- Tatsioni A, Gerasi E, Charitidou E, Simou N, Mavreas V, Ioannidis JP. Important drug safety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ssessing its accuracy and reliability. Drug Saf 2003;26(7):519-527.
- Yoo HR. Readability of printed educational materials used to inform computer tomography. J Community Nursing 2001;12(3):670-679.
- Jeong SH.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patient communities in Korea [Master Thesis]. The

